

ACM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4년 가을학술대회

# 지역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Improving Accessibility to Local Arts and Culture

2024/10/25 FRI 1-6pm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장

주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산업연구소

후원: 히스토리, (주)이공이공,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우회, 동문화, 도서출판 아트라이프

## 지역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Improving Accessibility to Local Arts and Culture

2024/10/25 FRI 1-6pm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대회의장

## I. 대학원 세션 (13:00 ~ 14:30)

## Session 1 (대회의장)

좌장: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유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A대학교 포토에세이

이혜빈, 권경은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 문화예술경영 대학원생들의 현장 활동 경험 연구: 맥락적 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육준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에 대한 연구-상호작용적 경험 모델의 중심으로

이우동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언어와 문화, 정서의 공유가 교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경 (University College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토론: 김진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 Session 2 (112호)

좌장: 이진우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안동의 공연예술 콘텐츠에 나타난 지역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전환  
양상

전영진, 이정희, 왕강, 유영재, 김민정, 배홍소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헤르만 슈미츠의 공간론을 통해 본 몰입형 극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천 현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박물관의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공예박물관을 중심으로

권민기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 토론: 정낙현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및 환영사 홍기원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 이영태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연구윤리교육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II. 기초발제 (15:00 ~ 15:30)

## 동시대 박물관·미술관 담론에 따른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 III. 일반 세션 (15:40 ~ 16:40)

좌장: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 공공예술지원사업의 심의총평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정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론: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직무순환 경험과 전문성에 관한 연구

김영란 (부천문화재단)

▶ 토론: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수)

##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와 노동조합 역할 탐색 -서울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남궁태윤 (서울문화재단)

▶ 토론: 김공숙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교수)

## IV. 라운드 테이블 (16:50 ~ 18:00)

좌장: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 동시대 지역문화예술기관에 관한 담론

김영주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김현주 (TransKultures 대표), 유명진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학예연구사),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정갑연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주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산업연구소

후원: 히스토리, (주)이공이공,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우회, 동문회, 도서출판 아트라이프

<회장 인사말>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한국문화콘텐츠의 보고인 안동에서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과 함께 가을정기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은 문화콘텐츠분야에 특화된 소수의 전문대학원으로서 관련 분야에 연구자와 실무자를 일찍부터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자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폭넓게 발굴되는 데에는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지식의 폭과 관점을 넓히는데 꼭 필요한 협업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학교와 현장의 연구자들의 발표도 주목받을 만하지만 미래에 지역에 건립될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그 목표와 역할을 토론했 보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전국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에서 지역의 공공문화기관이 문화분야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아닌 일상과 여가 그리고 지역의 사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홍기원

<환영사>

이영태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푸른 가을하늘이 감싸 안고 있는 안동대학교에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4년 가을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한국문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설립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산업, 관광,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지역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는 일상이 문화이자 예술의 주인공인 우리가 숙의해야 할 정보와 과제를 발표 논문들을 통해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안동에서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은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선현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문화를 매개로 학제적 연구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 향유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기초 발제를 맡아주신 박신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학회를 창립하신 교수님의 문화예술경영에 대한 안목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한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게 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 동시대 박물관·미술관 담론에 따른 지역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항명예교수)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역할 논의가 주어지고 있다. 박물관 건립의 경우, 향토사료관이라는 형태에서 박물관으로 기능 전환을 꾀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민속 등의 자료수집과 연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개방적이며 참여적 형태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을 주문받는 것이다. 미술관 건립 역시 근현대 미술자료의 수집과 연구, 지역작가 발굴과 지원, 현대미술을 통한 담론 형성을 통한 문화리더로서 함양 등의 역할을 전문성과 체계적 접근을 통해 문화진흥 구도를 만들어간다는 목표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박물관·미술관 건립 당위성은 문화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는 가운데 주어진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기술발달에 따른 급격한 사회문화 변동에 힘입어 지역 개념이 확장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ICOM 산하 국제지역박물관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Regional Museums, ICR)는 각 지역사회의 문화, 역사, 환경, 사회 발전 및 언어와 관련하여 지역박물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지역박물관의 과제, 철학, 방법론 및 국제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여기서 지역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가져가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본 발제는 동시대 박물관과 지역박물관 담론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살피고, 한국에서의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2022년 체코회의에서 채택된 ICOM의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살필 것이다. 새로운 정의는 기존 정의에 박물관의 접근성과 포용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공동체의 참여와 윤리적, 전문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본격화된 디지털 헤리티지와 문화자원 활용, 온·오프라인 병행구도를 덧붙일 것이다. 지역박물관 담론의 경우,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박물관 개념인 커뮤니티 박물관(Community Museum), 상호교류와 소통, 참여를 통해 관람객 행동 변화를 이끄는 참여적 박물관(Participatory Museum), 모두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의미하는 공공 히스토리 모델(Public His'tree Model), ‘포용성’과 ‘소장품의 개방적 활용’을 구현하는 박물관 개념인 열린 박물관(Open Museum),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영향 평가(Social Impact) 등으로 살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지역박물관·미술관이 고려해야 할 쟁점은, 1) 박물관·미술관을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관으로 확장하기 위해 넓은 의미의 복합문화공간화를 시도하는 경향은 일면 필요하지만,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역할이 희석화됨을 경계해야 한다. 2) 지역 고고학의 동시대적 연결성과 확장을 소장품 활용방안을 통해 실천한다. 3) 관람객/비관람객 개념을 놓고 관람객 세분화를 통한 관람객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민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영향을 중시한다. 4) 지자체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인식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조로 갖도록 하며, 전문인력은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폭넓고 유연하며 실천적인 기획과 운영, 거버넌스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유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A대학교 포토에세이

이혜빈, 권경은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사회 정서적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약 10여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률은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차봉준, 2022). 202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81,842명에 이른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과 유치를 위한 노력은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대학에게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김용운, 2023).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B시에 있는 A대학교 유학생 10명을 섭외해 면담하였고, 자료 활용에 동의한 8명의 유학생 포토에세이를 질적 사례 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1차 면담을 참여자들의 경험과 표현을 통해 범주화하였으며, 포토에세이 주제를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7개의 주제어를 생성했으며, 주제어는 유학생의 삶을 구성하는 7개의 요소로 분류되었다. - <유학계기와 생활환경> <교육 및 학업> <일과 경제생활> <감정과 관계> <언어> <본국> <문화활동> -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발전 과정에 있어 감정적인 연대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람시(1971)는 정치와 역사의 생성은 감정적 유대를 수반하며 감정과 열정이 이해와 지식으로 바뀌는 유기적 결합을 통해 비로소 집단은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면담의 전사록에서 범주화된 7개 유학생들의 삶의 구성요소와 개념을 <감정과 관계>를 횡축으로, <문화활동>을 종축으로 2차 범주화하여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직접 경험한 문화활동을 주제로 포토에세이를 작성하였으며, 포토에세이의 텍스트는 사진과 관련한 명시적인 문장을 비롯해, 은유적인 표현, 상징, 일기식의 자기표현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작성한 포토에세이는 자기의 표현이자 또 다른 문화 활동으로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참여자들이 1차 면담에서 표현하지 못한 경험들은 포토에세이에서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고 구체화 되었다.

A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수도권에 비해 B시는 일자리가 적지만, 저렴한 생활비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자연환경, 주거환경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유학생의 학업생활에 장학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학업생활과 유학생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장학금은 미래의 학업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혀야 하는 타자이자 수동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면서, 언어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장애물로 여기기도 하였다. 언어는 스스로가 서툴거나, 이해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과도 연결되었다.

부르디외(1979)는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자원을 문화 자본으로 설명하였다. 개인의 행동과 사고, 선호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는 단순한 취향 또는 소비가 아닌 개인이 처한 환경 및 사회 구조와 밀접한 연결을 가진다. 학업 중에 있으며, 타지에서 생활하는 외국 유학생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여가시간과 문화활동에 대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수 있거나, 문화 활동을 '예술'적인 것, 또는 자신은 잘 모르고 잘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스스로가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 향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있는 참여자는 자신에게 문화활동은 '과분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문화는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참여자가 경험하는 문화의 범주와 경험은 단순히 경제적 기반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았다. 가까운 곳을 산책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흥을 돋울 수 있는 춤바를 통해 내적으로 사색하고 외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하였고,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한 참여자는 좋은 날씨, 멋진 해변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주위를 돌아보며 외국인이 아닌 이곳에 태어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만의 상상 속 시공간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홀로 여행하거나 활동할 때 언어소통과 제한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표현했는데, 때문에 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여행, 악기연주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들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하는 데 있어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생활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 유학생들은 다양한 국적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대학교 내/외부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동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으며, 문화활동은 새로운 다문화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경험 확장의 통로와 매개로 역할한다.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회성 행사인 한국 문화 탐방이나 멘토링보다는 유학생들이 학사행정, 장학금 신청 등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공유함으로써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학과 교과목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들이 타자로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대학과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운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제어:** 유학생, 문화활동, 포토에세이, 질적연구

<신진연구자 연구 발표>

## 문화예술경영 대학원생들의 현장 활동 경험 연구 - 맥락적 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육준우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문화예술경영은 이론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학문으로 교육과정의 양적, 질적인 확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경험과 실습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문화예술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문화예술경영 전문 인력의 활약이 꾸준히 요구되는 가운데 다변화되는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과정 중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행하고 맥락적 학습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개인적 맥락’에서 대상자들이 높은 기대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다양한 실무 기술을 접하고 인맥 형성의 유익을 경험하는 반면, 멘토 부재로 인한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적 맥락’에서는 사전 교육 여부에 따라 현장 활동의 적응 및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과목 확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대학과 현장 기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문화예술경영, 현장 경험, 맥락적 학습 모형, 현장학습, 경험 연구

##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에 대한 연구 -상호작용적 경험 모델의 중심으로

이우동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박물관의 개념과 관람객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적 경험 모델 (Falk & Dierking, 1992)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후, 문헌 분석을 토대로 박물관 경험의 물리적, 사회적, 개인적 맥락과 연관되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박물관 관람객 경험의 총체적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상쇄하고자, 본 연구는 부르디외 이론의 주요 개념과 관람객 경험의 관계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박물관의 물리적 맥락은 사회적 공간으로, 방문자의 개인적 및 사회적 맥락은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맥락의 교차점을 계급, 취향 및 아비투스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을 문화적 실천으로써 이해하기 위한 준거의 틀을 제시하였다. 실천은 아비투스를 계산 원리로 삼아 사회의 존재 조건과 개인의 선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관람객의 경험을 실천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화된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실천은 특정 공간에서 사회적 자본의 경향에 따라 개인의식 속에 내재화되며, 관람객의 미적 판단과 문화적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논문의 학술적 의의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지위에 관한 논의와 박물관 경험을 관계 맺음을 통하여, 관람객의 박물관 경험에 관한 총체적 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박물관 전문가는 이 모델에 포함된 개념을 통해 박물관 방문객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박물관 경험을 다양화하여 방문객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유도할 수 있다.

**주제어:** 박물관, 박물관 경험, 상호작용적 경험 모델, 부르디외

<신진연구자 연구 발표>

**언어와 문화, 정서의 공유가 교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제: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Roles and Potentials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Securitisation)**

정부경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평양과학기술대학교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PUST)는 북한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이곳에선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 출신 교수진이 북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수진 상당수는 제 3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계로, 외부와 자국민의 교류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PUST의 존재는 많은 예외성을 지닌다.

이 연구는 Securitisation Theory와 Victim-Perpetrator-Liberator-Peacebuilder (VPLP) Framework를 기반으로 PUST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했던 배경과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과 같은 conflict-affected contexts에서 PUST가 교육기관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검증한다. 질적 연구를 위해 PUST의 운영 및 교육에 참여했던 관계자 3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 다른 전직 교수진 2명이 PUST에서의 경험에 대해 증언한 문헌 및 구술 기록을 활용했다. 연구는 PUST의 탄생 배경에서 국가 또는 지배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안보화 (securitise) 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맥락에 주목했다. PUST가 설립된 이후로는 PUST 자체가 서방 세계에 의해 재차 안보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 역시 서방국 출신 학자들의 교육을 받은 자국 학생들이 추후 정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PUST의 운영에 강도 높은 감시와 제한을 가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PUST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건 자력갱생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려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 필요성, 그리고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에 뜻을 둔 민간 및 학계의 노력이었다. 더불어 북한 당국의 강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엔 다양한 종류의 교류가 일어났는데, 그 바탕엔 PUST의 많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정서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같은 요소가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교실 내에서 드러날 때, 자신들과 학생들 사이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을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연구 결과는 PUST가 분쟁 상황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평양과학기술대학교, Securitisation Theory, VPLP Framework, Education in conflict-affected context

<신진연구자 연구 발표>

## 안동의 공연예술콘텐츠에 나타난 지역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전환 양상

전영진, 이정희, 왕강, 유영재, 김민정, 배홍소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공연예술 콘텐츠는 지역 홍보와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마케팅의 수단이다. 안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 그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공연 예술 콘텐츠로 전환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안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관련 연구는 안동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웹툰 연구, 기록유산 속 공간과 이야기 자원의 활용방안 등 이야기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연관광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안동뮤지컬 공연 지불의사분석, 지역민들의 공연예술 참여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연구,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무용공연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활용한 공연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성은의 스토리텔링 전환 유형 이론을 통해 안동 지역의 이야기를 변용한 공연콘텐츠 6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지역 이야기가 현대 공연예술 콘텐츠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찰한다.

이로써 지역 공연예술 콘텐츠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콘텐츠로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공연예술콘텐츠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지역 이야기,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전환, 공연, 공연예술 콘텐츠

<신진연구자 연구 발표>

헤르만 슈미츠의 공간론을 통해 본 몰입형 극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상하이의 'Sleep No More'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천 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Sleep No More' 극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형식과는 다른 몰입형 극장의 고유한 공간 특성과 그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헤르만 슈미츠의 공간론을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으며, 12명의 극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몰입형 극장인 'Sleep No More'는 네 가지 주요 공간적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장소 공간으로서의 '위치'의 의미를 재창조하였으며, 이는 서사성, 복잡성, 관객의 주체성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방향 공간은 '경로'의 의미에서 관객의 개성적이고 역동적인 참여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다양성, 차별성, 관객의 능동적 선택의 참여를 가져왔다. 셋째, 감정 공간은 극장의 분위기 측면에서 관객의 주체적 몰입을 실현시켰으며,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주체적 몰입에 대한 특성을 가진다. 넷째, 확장 공간은 매개체가 공간의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연장성, 유한성, 전통성의 의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몰입형 극장 공간은 단순히 시각적 내용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미를 재창조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몰입형 극장, Sleep No More, 헤르만 슈미츠, 공간론, 질적 사례연구

<신진연구자 연구 발표>

## 박물관의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공예박물관을 중심으로

권민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현대의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 문화 교류, 여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단순히 전시 관람을 위해서만 박물관을 찾지 않는다. 최근 박물관의 양적 증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방문객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환경을 넘어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를 도입하여 방문객의 행동을 통제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박물관의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 해당 요소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방문동기에 따른 방문객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박물관의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는 전시 서비스, 박물관 환경, 방문객, 직원 서비스, 회복성, 인접 상업환경, 인접 관광환경으로 구성되었으며, 박물관 환경, 직원 서비스, 회복성, 인접 상업환경, 인접 관광환경 요인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시 서비스와 방문객 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박물관 애호가 유형, 여가형 방문객 유형, 소극적 방문객 유형은 각 유형에 따라 박물관의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 요인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보였으며, 방문객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박물관의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가 방문객의 재방문의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박물관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운영 관리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방문객 중심의 서비스스케이프 전략을 제시하고, 박물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박물관, 확장된 서비스스케이프, 뮤지엄스케이프, 방문객 유형, 재방문의도

<일반 세션>

## 공공예술지원사업의 심의총평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김정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 연구는 현재의 공공예술지원사업의 당선발표와 함께 동봉되는 심의총평 혹은 심사평이 문화예술계의 심사제도라는 정책담론 안에서 예술지원과 예술인, 그리고 심사위원 이 3가지 대상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되는 측면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문화예술 심사제도의 변천과정을 예술지원의 역사 속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지원사업에서 심의총평의 개념과 내용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떠한 변화와 합의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심의총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과 대상별 기대 인식에 차이에 관한 양가성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술지원의 유무를 판별하고 근거화하기 쉽게 표방되는 유일한 코멘트인 심의총평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의 모호성과 기능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여 공공예술지원사업의 심사에 관한 내용이 텍스트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문제화하고자 했다.

**주제어:** 공공예술지원, 심의총평, 심사제도, 예술정책

<일반세션>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직무순환 경험과 전문성에 관한 연구

김영란 (부천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다.

최근 이러한 문화재단에서는 공무원 조직과 유사한 직무순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장에서 전문성 약화와 업무 연속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조직 전체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순환 경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전문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순환 경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직원들은 지역문화재단을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무순환에 대한 경험은 개인별로 다양한 의미와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과 기준 없이 시행되는 직무순환은 직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지만, 전문성을 기반으로 직무순환의 필요성과 명확한 원칙을 공유하고 동일 직군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직무순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주제어:** 지역문화재단, 직무순환, 전문성, 인사정책, 인사시스템

<일반 세션>

##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와 노동조합 역할 탐색 - 서울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남궁태윤 (서울문화재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재단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문화재단의 거버넌스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문화재단의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 노동조합의 내부 거버넌스 참여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에 공공영역의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스투어드십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노동조합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문화재단 노동조합 출범의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울문화재단, 직원 개인,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문화예술행정가 개인들의 소명의식과 문화재단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바라보는 예술생태계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본인들이 속한 문화재단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경영진을 협력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익추구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조직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주어진 수탁자의 의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행정가들의 자기인정과 책임감이 만들어내는 노동조합의 스투어드십은 노동조합이 문화재단 내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노동조합, 스투어드십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연구윤리규정

2008년 10월 1일 제정

2021년 6월 1일 개정

##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할 연구 및 보고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자의 윤리)

-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연구 및 보고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이중투고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조’는 허위로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 또는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관계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저자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
  -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3조 (심사자의 윤리)

-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

- 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은 『문화예술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5.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제5조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역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1. 위원회는 조사 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2.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공고
  - 2) 논문이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 3) 논문이 이미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문화예술경영학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지)
  - 4) 향후 3년간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논문투고 금지
  - 5)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문화예술경영학연구』에 위반 사실을 공지

#### **제8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1.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2.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임원진 구성 (2023년 5월 26일~2024년 12월 31일, 제8기임원)

직무	성명(소속)
고문	박신의(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1, 2대 회장)
	양현미(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3대 회장)
	이용관(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4대 회장)
	신형덕(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5대 회장)
	류승완(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6, 7대 회장)
회장	홍기원(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전공 교수)
부회장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총무이사	민정아(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편집위원장	류승완(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학술위원장 (공동)	장용조(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진우(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학술이사	최보연(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안채린(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정우정(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새미(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교육이사	김인설(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김선영(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서영덕(추계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학과 교수)
	민지은(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홍기훈(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외협력이사	강은경(서초문화재단 대표)
	김수현(SBS 문화부 전문기자)
	최정은(클레이아트뮤지엄 관장)
	황윤숙(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송준민((주)제이콥스플래닝앤디자인 대표)
	음성원(한국 에어비엔비 미디어정책총괄)
국제협력이사	이수희(University of Kent 경영대학 교수)
	김재범(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혜경(King's College London 문화미디어창조산업학과 교수)
	이보람(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예술경영학과 교수)
	조효정(Texas Tech Univeristy 교수)
	고영아(Miami University, Arts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교수)
	류선정(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연구기획이사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신혜선(위컬처 리서치앤컨설팅 대표)
	주연화(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이민하(중앙대학교 창의ICT 공과대학 융합교양학부 교수)
	심규선(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손재영(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감사	성원영(중앙그룹 법무홍보실 변호사)
사무국장	김정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박사과정)

□ 편집위원회

역할	명단 및 소속	분야
편집위원장	류승완(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편집위원	홍기원(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전공 교수)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장웅조(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인설(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서영덕(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학과 교수)	
	이민하(중앙대학교 융합교양학부 교수)	
	안채린(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장혜원(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유승호(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최인경(전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	
	박승희(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구보경(서울디지털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육주원(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민정아(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손재영(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진우(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연구교수)	
	임성윤(평택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박지민(파리 SceincesPo. 방문교수)	
	최보연(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Eleonora Redaelli (Arts and Administration Program, University of Oregon)	
	Claudia Bach (Seattle University)	
	Chengzhong Wu (Culture and Leisure Industries Research)	
	Sun-Man Tseng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Kong)	
	이수희(University of Kent 경영대학 교수)	
	Ruth Rentschler (Professor, Dept. of Arts and Cultural Leadership,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ustralia)	
	Javier Hernandez (Professor, Universidad del Sagrado Corazón)	
	고영아(Miami University, Arts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교수)	
	Jarnett Snowball	
	이보람(Professor, Dept. of Arts and Cultural Leadership,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ustralia)	



